

대륙별 스카우트 의장단 새만금 초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세계잼버리' 개최 최적지 확인시켜... 스마트&첨단기술 장점 적극 피력

새만금개발청이 대륙별 스카우트 의장단을 새만금 현장에 초청해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8일 대구 제14회 한국잼버리'에 참가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5개 대륙별 스카우트 의장단을 '2023세계잼버리' 개최 후보지인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

했다.

이번 대륙별 의장단 초청은, 새만금의 경쟁력을 설명하고 새만금이 '2023세계잼버리' 개최의 최적지임을 직접 확인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광활한 부지와 인근지역 다양한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 산·물·강·바다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한데다 그간 볼 수 없었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활용한 스마트&첨단기술 잼버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적극 피력했다.

이 청장은 잼버리 개최 예정지(부안 인근 관광레저용지 1지구)의 야영장 부지 및 활동장 등을 안내하며 일본

사례에서 지적된 접근성 및 무더위 대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대륙별 의장단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대륙별 주요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2023세계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 온열질환자 72명 발생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전북지역이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한 가축도 무려 1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8일 전북도와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도내 평균 폭염일수는 17.9일로 전국 평균(8.2일)보다 2배 가까이 가마술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주·익산·정읍·완주 4개 지역의 폭염일수는 무려 22일을 기록하고 있고 임실은 21일 고창과 부안·김제는 19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상황을 보면 도내에서는 7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5명으로 여자(17명) 보다 배 이상 많고, 질환별 발생 현황으로는 열탈진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 17명, 열경련 15명, 열실신 8명 등이다.

폭죽 쫓는 폭염으로부터 가축 농장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93만2288마리의 가축이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했는데, 가축별로는 닭이 89만4815마리로 가장 피해가 크고, 오리 1만5886마리, 메추리 2만마리, 돼지 1587마리 등이다.

이 같은 피해는 전국대비 39%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열대야마저 기승을 부리면서 숙면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정읍에서 처음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이후로 도내 곳곳에서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주와 정읍이 이날 현재까지 11일간 열대야가 발생했고, 군산 9일, 부안 7일, 고창 6일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와 각 시군에서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9월 초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



해양수산 통합행정 20주년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과 역대 장관관들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해양수산 통합행정 20주년 기념행사에서 해수부의 역사와 자료를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하고 있다. 타임캡슐은 20년 뒤인 2036년 8월 8일 개봉된다.

전북 신생SW기업에 MS 소프트웨어 지원

도·한국MS, 79개 기업 선정 1억원 상당 SW 지원... 29일부터 신청·접수

전북도와 한국MS가 도내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프로그램 개발 툴을 비롯한 100여억 원 상당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8일 도에 따르면 한국MS와 함께 전북지역 신생기업 79개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도가 지난 2014년 12월 한국MS와 도내 100개 신생 기업에 3년간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협약한 데 따른 것이며 2015년 21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무상제공은 물론 기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상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개발 툴(Visual Studio)을 비롯해 OS(운영체

제)와 서버 라이선스 등 1,0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이를 실제 구입비용으로 따지면 1개 기업 당 1억 원 상당의 규모다.

실제 ICT분야 1인 창조기업 및 신생 기업이 모든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 정품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역부족으로, 우리 도내 기업들도 일부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저작권법 침해 등 법적 분쟁의 우려가 상존해 왔다.

하지만 이번 '소프트웨어 신생기업 지원 사업'(이하 '비즈스파크')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한국Microsoft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관련 법적 분쟁 등의 걱정 없이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할 수 있어 도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최훈 기획관리실장은 "소프트웨어 무상지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술 및 마케팅 컨설팅 등을 함께 지원해 도내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즈스파크의 지원 자격은 설립 5년 이내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으로, 상장사와 대기업 자회사는 제외되며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2015년 전북 사회조사'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1만3,000 표본가구 만 15세 이상 대상

전북도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13일간 14개 시·군 1만 3,000 표본가구에 시는 만 1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2016년 전북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항목은 인구와 가구·가족, 소비·소득,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도 및 시군특성항목 등 6

개 분야의 210개 항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는 도와 시·군의 지역적 특성항목을 포함하면서 시·군 단위까지 공표되는 시·군별 지역특화통계로, 정확한 조사결과가 지역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군산시, 201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문동신 시장, 기재부·해수부 등 중앙부처 방문 협조요청

군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문동신 군산시장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2017년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 시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남북2축 도로 등 새만금 인프라시설의 조기구축을 위한 2017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또 해양수산부에 군산항 활성화와 관내 기업체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한중 카페티 항차 증편 등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번 기재부 방문은 정점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3차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으로, 새만금 남북2축 도로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새만금 내 부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 시장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 촉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2축 도로의 2017년 사업비로 12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또한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고군산 관광의 매력도 증진을 위한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2017년도 사업비 2억원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세종시 정부청사 내 여러 부처를 방문해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군산~중국 석도 항로를 현재 주 3항차에서 주 6항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24차 한중해운회담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문동신 시장은 "각종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에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협조를 공고히 할 것"이며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에는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7년 국가예산 사업으로 신규사업 28건 316억원과 계속사업 258건 1조663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동신 시장

미래재난담당관에 민간전문가 소철환씨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대형 자연재해, 사이버테러, 신종전염병 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미래재난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안전한 미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처는 기후변화 분야의 전략기획, 연구개발(R&D) 및 리스크 평가·관리 전문가인 소철환(44)씨를 이날자로 미래재난 위협 분석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미래재난담당관으로 임용했다. /뉴스

소 담당관은 지속가능경영, 환경안전, 기후변화 분야의 전략기획, R&D 및 리스크 평가·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 수석(부장), LG전자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차장·파트장, LG환경안전연구원 환경전략팀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소 담당관은 앞으로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을 예측하고 미래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 및 실행 네트워크 구축을 맡게 된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상림(1932.07.25.생 2016.4.19.사망)의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허윤범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년단594 상속한정승인 판사 허윤범
▶ 피상속인: 망 박상림 (1932.07.25.생 2016.4.19.사망)
▶ 취주소: 전북 완주군 구이면 평촌로 69
▶ 공고인: 강명환
▶ 한정승인수리일: 2016. 8. 1.
▶ 공고기간: 2016. 8. 9. ~ 2016. 10. 8.
▶ 연락처: (청구인 강명환의 주소지)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109, 101동 402호 (서신동, 엘리자파트)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육련(1953.11.15.생 2016.4.12.사망)의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허윤범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년단587 상속한정승인 판사 허윤범
▶ 피상속인: 망 이육련 (1953.11.15.생 2016.4.12.사망)
▶ 취주소: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40, 206동 1102호(인후동1가,부영@)
▶ 공고인: 한아름
▶ 한정승인수리일: 2016. 8. 1.
▶ 공고기간: 2016. 8. 9. ~ 2016. 10. 8.
▶ 연락처: (청구인 한아름의 주소지) 전북 임실군 성수면 임진로 20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